

베네수엘라 · 이란 정부, 볼턴 보좌관 사임 자축

'19. 9.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대(對) 베네수엘라 · 이란 정책의 핵심인물로 활동해온 존 볼턴(John Bolto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이 자국 정부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이와 관련해 타렉 엘 아이사미(Tareck El Aisami) 베네수엘라 경제 차관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볼턴 보좌관은 거짓 정보를 일삼았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 진실된 역사가 전쟁광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 미래는 베네수엘라를 향해있으며, 반드시 승리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헤사메딘 아세나(Hesameddin Ashena) 이란 대통령 고문은 SNS 계정을 통해 "볼턴 보좌관의 사임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압박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진행한 압박 정책의 대상에 포함된 바 있으며, 양국 정부는 경제 제재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를 부과받은 바 있다.